

가해·제2032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가정 성화 주간
2019년 12월 29일



제19회
가정 성화 주간
포스터

2020년 사목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목 차

02 특집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⁴⁹

03 말씀의 향기

바라는 성가정 vs 현실 가정

04 담화 요약

제19회 가정 성화 주간

05 열린마당

한국 순교 선조들

신앙 못자리는 '성가정'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마태 2,13-15.19-23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⁴⁹

글/ 교회사연구소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IV: 사회복지활동

춘천시립양로원 · 춘천시립요양원

1984년 골롬반 수녀들은 춘천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단신으로 월남한 사람들이 독거노인으로 홀로 살아가면서 겪는 소외감과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연민 어린 공감을 하게 된 것이다. 춘천시와 춘천교구는 골롬반 수녀회에 춘천시립양로원과 요양원의 행정 및 관장직을 맡아 줄 수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녀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 수녀를 파견하여, 지역 사회와 교구민들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했다. 시대적 흐름과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1996년 춘천교구 사회복지회로 이양되었다.

가정 호스피스

1989년 골롬반 수녀들은 골롬반의원 내에 호스피스과를 신설하고 가정 호스피스(당시 방문 호스피스로 불림)를 시작했다.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수녀들은 임종하는 환자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할 시점에 영적, 의료적 도움을 줌과 동시에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지켜 주었다. 골롬반 수녀들과 간호사들은 한 팀을 이루어 춘천 인근 지역인 홍천, 가평, 원주 등지까지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24시간 운영했으며, 당직 콜을 받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와 가족들을 방문해 통증 완화와 영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현신적인 간호사와 봉사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은 방문 활동 중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숨겨진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가족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자를 중심으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환자가 세상을 떠난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인 사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골롬반 수녀회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호스피스 외에도 의원 내에 ‘베다니의 집’을 열어 24시간 내내 말기 암이나 임종 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 담당자들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았다. 2004년 골롬반 의원은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노인 전문 요양원 성 골롬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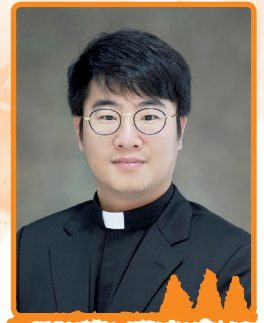
골롬반 수녀회는 가정 호스피스 사목 중 수녀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동한 후원자로부터 춘천 거두리 지역의 땅을 기증받았다. 그리하여 2004년 3월 춘천 거두리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전문 요양원, 성 골롬반의 집을 개원했다. 개원 당시부터 호스피스 병상도 보유하고 있던 터라 수녀들은 임종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사후 관리 및 영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성 골롬반의 집은 죽림동 골롬반 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해 나갔다.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성가정 vs 현실 가정



윤장호 시몬 신부
연봉본당 주임

오 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이루셨던 성가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을 말할까요?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아무런 걱정이 없는 가정? 어쩌면 이러한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이루셨던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은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가정이었고, 눈물이 그칠 일이 없었던 가정이었으며,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말하며, 그 가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잘못과 실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느님 뜻을 받아서 예수 잉태 소식을 받아들이는 성모님이었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꿈 속의 지시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또 이집트에서 나자렛으로 옮기는 등 철저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 나옵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집회 3,12-14)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콜로 3,18-21)

이 두 말씀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가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현실은 이상과 달라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공감합니다.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이 다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2)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3) 내 판단 기준에 가족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4) 서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듣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성가정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소명

제19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

성탄 축제를 지내는 우리 교회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탄의 신비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부부의 사랑과 헌신 속에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거룩함은, 혼인이 하나님의 성사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강복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 당신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 소명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로 가정을 이룬 이들은 그들 안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혼인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에 따르는 사회 경제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혼인의 의미를 부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인격의 성장과 자아의 완성에 두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혼인이 갖는 성사적 의미를 일깨우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혼인 교리를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부모 세대의 지나친 보호 아래 성장한 자녀 세대가 겪는 가치관의 혼란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기 소외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동물 학대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온갖 폭력과, 보복 운전, 살인, 자살 등의 근원이, 자녀들을 경쟁으로 내몰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시대의 가정에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의 싸움터로 내몰린 오늘날의 가정이 겪는 위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희망하는 부모는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갖는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능력만을 키우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가 겪게 되는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정의 상처로 돌아옵니다. 가정은 자녀의 생명을 품고 기르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자녀에게서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는 가운데 부부의 성덕을 키워 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정의 소명은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지켜 주고, 성장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삭막한 세대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웃 가정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최고의 소명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가정과 가정의 연대는 우리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사랑과 나눔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게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주교

신앙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화되어 갑시다.



한국 순교 선조들 신앙 못자리는 '성가정'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시작한 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큰 자랑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성가정에서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복자, 성인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24위 순교 복자와 103위 성인을 보면, 부모를 통해 신앙을 물려받은 이들이 가장 많고, 가족과 친척 등 혈연관계가 신앙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박해 시대에 가정 공동체로 신앙을 유지해온 순교 선조들은 매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삼종기도, 아침·저녁 기도뿐 아니라 성경과 기도서를 읽고 외우며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충실히 지켰다고 전해진다. 가정 공동체의 이런 분위기가 순교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때로는 배교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원천이 됐다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가정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가정이 집안 교회로 신앙 보금자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 특히 기도 생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 교수도 강연회를 통해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곳은 결국 가정”이라면서 신자 부모들은 단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꾸준히 신앙을 권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가정을 성가정으로 가꿔야 한다는 것이다.

복자 정약중(아우구스티노)의 아들 정하상(바오로) 성인이 「상재상서」에서 한 고백을 200여 년 전의 낡은 이야기로 흘러버릴 수 없는 이유다.

“충효 두 글자는 만대가 흘러도 바꿀 수 없는 도입니다. 부모의 뜻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 자식된 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더욱 근신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길 때 예를 다하고 봉양할 때 힘을 다 바칩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임금에게 옮겨가면 몸을 버려 목숨을 바치게 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리길재 기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2020년 예비신학생 겨울 피정

1. 6(월) ~ 8(수) 강원도청소년수련원
대상: 초6(졸업예정자) - 일반 예비신학생
신청기간: 12. 31(화) 까지(본당 사무실)
☎ 033-240-6073 성소국

신년하례미사

1. 2(목) 11시, 죽림동주교좌성당

교구청 일정

송년미사 및 종무식: 12. 31(화) 11시
시무미사: 1. 3(금) 9:30

여성 제84차 꾸르실료

1. 9(목) ~ 1. 12(주일), 가톨릭회관

구인란 토마스 주교 49주기



생년월일: 1896. 09. 13
주교품: 1955. 11. 23
선 종: 1970. 12. 31

황영택 사도요한 신부 24주기



생년월일: 1948. 02. 02
서품일: 1976. 12. 09
선 종: 1996. 01. 04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2019. 12. 1 ~ 2020. 11. 28)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춘천교구 성령새신봉사회/장소: 윤교동소성당

상설기도회 없음: 12. 31(화)
상설기도회: 1. 7(화) 19시 - 22:30
강사: 이보경(서울)/ 미사: 안수일 신부

ME 협의회

1. 4(토) 16시, 애막골성당

레지아 신년하례미사 및 월례회

신년하례미사: 1. 5(주일) 11시, 교구청 경당
월례회: 1. 5(주일) 14시, 말딩회관 3층

29차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영동지구

1. 10(금) 19시, 초당성당
주제: 교회와 미디어
강사: 이현선 신부, 주례: 권오준 신부

1월 카나 혼인 강좌/커피당 3만원

1. 18(토) 19시, 애막골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관현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춘천교구 가톨릭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 화-금/ 영동: 월-금(10-17시 이용가능)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김현신 신부 사진전

~ 1. 5(주일)까지, 부활성당 석주 갤러리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달력 사진 공모전

춘천교구 설정 80년, 우리들의 모습들
촬영 기간: 2018. 12. 1 ~ 2020. 6. 30
접수 기간: 2020. 6. 1 ~ 7. 10

주최: 문화홍보국· 후원: 춘천가톨릭신협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강릉 F.솔라노형제회 ☎ 010-8725-8763
춘천 디모테오형제회 ☎ 010-4705-7720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5364-0373
삼척 프란치스코형제회 ☎ 010-8258-2821

본 당 알림

죽림동성당 역대 사목회장 관련 알림

죽림동주교좌본당의 사목회장을 역임하
신 분들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제15대(1958-1960) 김희중 도나도
☎ 033-254-2631 문의 사무실

인 준 시 설

양양 오상영성원/예수고난회

겨울산과 숲에서 심과 기도
개인피정 집/ 가족 단위 심터
☎ 033-673-0035, 3355 문의

밀알일터와 함께 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에리코클리닉 무료진료 안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봉사단체

진료일정(14시부터)

1월 5일: 내과, 치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후원계좌: 신협 131-019-611551

신한은행 100-032-914833

예금주: (재)춘천교구천주교회

http://cafe.daum.net/jericho2003

☎ 033-264-3547 문의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 5(주일) 14시	퇴계성당 2층 기쁨방	010-9353-1773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	-------------	---------------	------------------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수맥 흙 침대

30년 공장직영, 황토소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백 베드로

매일관광(주)
G1 해외문화탐방

성지순례 / 해외·국내여행
전세버스 / 전세계 항공권
☎ 033-253-4567, 010-5368-1965
이강균 모세

인 준 시 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미디어활동프로그램 '삶담소' 참여자 모집

대상: 미디어 활동이 가능한 14~23세 발달 장애청소년 6명/ 비장애대학생 보조인력 4명
내용: 미디어활용법, 영상·영화제작, SNS 활동, 영화제 출품

☎ 033-262-0035 사회활동지원팀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시 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모집

주간보호 어르신(장기요양등급자)
시설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 033-673-0933~4 양양군 양양읍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 031-536-8998 경기 포천시

갈바리노인복지센터 어르신모집

1~5등급 재가등급 받으신 어르신을 모집
방문요양, 방문목욕(강릉)
☎ 033-644-3477, 3474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본소 직원채용

청소년지도사 1명/ 1. 10(금)까지
홈페이지 참조 www.gwysc.or.kr(공시사항)
☎ 033-641-3990 문의

일 반 알 림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 9(목) 이스라엘·요르단 13일(380만원)
2. 13(목) 베트남 성모성지 5일(160만원)
3. 23(월) 터키·그리스 12일(370만원)
3. 27(금) 이스라엘·요르단 13일(37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부산가톨릭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

원서접수: 12. 26(목) ~ 31(화)
선발 '군': 18개 학과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선발/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방법: 홈페이지 참조(ipsi.cup.ac.kr)
☎ 051-510-0702 입학처 입학관리부

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3. 29/ 4. 20/ 5. 6 이스라엘, 요르단 10일(289만원)
3. 30(월) 이스라엘 9일(299만원)
3. 12(목) 이태리 일주 9일(279만원)
3. 4(화) 스페인 포르투갈 10일(299만원)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신입생 모집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1.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 10명
2. 원서접수: 12. 26(목) ~ 31(화)
3.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 061-280-5108, 5150 입학상담

분도여행사 ☎ 02-852-8525

2. 1 이스라엘·요르단 KE(439만원, 11박12일)
2. 10 유럽 3대 성모발현지 OZ(395만원, 12박13일)
2. 12 유럽 3대 성모발현지 OZ(395만원, 12박13일)
2. 13 이스라엘·이탈리아 KE(439만원, 11박12일)

가톨릭상지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1차 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상지대학교
정시 1차 모집: 12. 30(월) ~ 1. 13(월)
☎ 054-851-3021 입학문의

2020년 살레시오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2020. 1. 31(금) ~ 2. 2(주일)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여의대방로 65)
대상: 예비 고3, 성인일반(만33세이하)
☎ 010-5159-3949 문의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
입학정원: 2,912명 / 원서접수: 12. 26(목)~31(화)
☎ 053-850-2580 입학상담

가톨릭여행사 ☎ 010-5235-3533

2. 17(월) 이탈리아·이스라엘 12일(405만원)
2. 17(월) 이스라엘 9일(365만원)
4. 20(월) 유럽4개국 성모님발현지 12일(375만원)
4. 21(화) 이스라엘·요르단 11일(415만원)
4. 27(월) 터키·그리스 12일(375만원)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순례 중 미사 4번
(성지 6개, 사제 동행, 특2급 호텔)
☎ 010-5150-2625 마르코 투어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그동안 보내주신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심협

종합광고 알파피앤디

간판/ 현수막/ 표지판/ 성가안내판
LED전광판/ 기념품/ 감사패
포스터/ 명함/ 스티커
☎ 033-262-8555, 010-7308-8555
김요섭 요섭

팔팔 한의원

韓·中 양국의 전통 의학을 결합하여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암침 전문/ 척추 관절/ 안구 질환/
중풍 예방 관리, 춘천 퇴계로 105번길5
☎ 033-264-1588(지호빌딩 2층/ 김성중 내과 원)
김장현 다테오

울곡 공무원 학원

공공인재양성
www.yulgokedu.com
☎ 033-653-6022(울곡이이)
차재운 사도요한·유애륜 수산나

이 룠 치 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진료
춘천 CGV 대각선 길건너편 3층
교우 우대
☎ 033-910-0033
신동휘 아우구스티노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정성재가복지센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댁에서 돌봐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1~4급 있으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능하심
등급이 없으면 등급신청도 해드립니다
☎ 033-251-9505 임현숙 요안나

춘 천 한 우

1++최상급 한우구이 전문점
점심특선 한우불고기 명품 정식
한우 소머리 사골 곰탕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6-3번지
☎ 033-257-0205 노윤정 모데스타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